

2025년 6월 1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장 1절 - 11절

화답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서 : 에페소 1장 17절-23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4장 46절-5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 성가 : 188번 ‘천사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천사가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지니게 된 희망과 받게 될 상속의 영광을 알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2025년 6월 8일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143번 '진리의 성령'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2장 1절-11절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2장 3절-7절, 12절-13절

부속가 : 매일미사 책 p66참조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20장 19절-2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한자리에 모인 사도들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전하는 사도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

2025년 6월 15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잠언 8장 22절-31절

화답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2 독서 : 로마서 5장 1절-5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6장 12절-1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앞으로 올 일들도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82번 ‘주 찬미’

2025년 6월 22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6번 ‘온 세상이 주님을’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4장 18절-20절

화답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1장 23절-26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9장 11절-17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성가 : 161번 ‘성체를 찬송하세’

영성체 후 묵상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황량한 곳에서 날은 저물고 잠자리와 음식을 구해야 하는 군중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2025년 6월 29일 주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된 베드로와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준 바오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합시다.

입당성가 : 291번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 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 12장 1절-11절

화답송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제 2 독서 : 티모테오 2서 4장 6절-8절. 17절-18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복음 16장 13절-19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영성체 후 묵상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처럼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바오로처럼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1번 ‘은총의 샘’